

신분증이 폰 속에 쏙!... 편의점서 식별번호 진위도 확인

이통3사-경찰청 '패스' 인증앱
생체인증·핀번호로 간편 로그인
개인정보 불필요한 노출 최소화
면허증 위·변조 효율적으로 차단

오는 24일부터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편의점에서 신분 확인을 모바일 기기로 할 수 있게 됐다. 담배나 술 등 19세 미만 구매 불가 물품을 살 때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QR코드나 바코드 스캔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된 것.

이통3사와 경찰청은 '패스(PASS)' 인증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사례다. 이통3사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일 '패스 모바일운전면



모델이 '패스 모바일운전 면허확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통3사

허 확인서비스'는 이통3사가 각 사의 역량을 모아 개발했다. 이동통신사의 본인인증 통합 브랜드 패스는 통합 이전 총 1400만명 수준에서 통합 이후 지난

2월 2800만명을 돌파하고, 현재 가입자 300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통3사는 지난 3월부터 패스 제휴 서비스 이용시 생체인증(지문·얼굴인식)이나 여섯 자리의 핀(PIN)번호 인증 중 한 가지를 골라 간편하게 로그인 할 수 있도록 한 '패스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번에 출시된 서비스는 패스 앱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앱 로그인을 한 후 메인 화면에서 'QR출입증'을 선택 후 약관에 동의하면 바로 쓸 수 있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다.

기본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했다. 인증 화면 위에 상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QR코드·바코드 캡처를 차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드를 초기화해 도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패스 앱에 운전면허증 등록 시 본인

회선 명의 인증과 기기 점유 인증을 거치며, 운전면허증 사진과 면허번호, 식별번호의 진위 여부도 동시에 확인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패스 서비스와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면허증 사진이 앱에 등록되도록 했다.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로 면허증을 위·변조하려는 시도 또한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안전영역에 암호화돼 보관된다. 이통3사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연인을 식별할 수 없는 최소한의 개인 식별 정보만을 저장·관리해 개인정보 오용 우려를 낮췄다.

우선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전국 CU편의점, GS25편의점 전 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된다. 내달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편의점에서는 미성년자의 술·담배 구매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

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 대신 '패스' 앱을 제시할 수 있다.

이통3사는 이날 BGF리테일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CU무인편의점 적용뿐만 아니라 신분증 위변조·도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비대면 이용 신청이 잦은 렌터카 및 공유 모빌리티 업계 역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공사 또한 연내 국내선 출국장에서 이 서비스를 공식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통3사는 "향후 활용분야를 지속 확대해 패스 모바일운전 면허확인서비스가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급증한 비대면 본인확인 및 모바일 금융거래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던파아버지' 허민, 넥슨 차기작 본격 지휘

(원더홀딩스 대표)

넥슨-원더홀딩스, 합작법인 설립
마비노기모바일, 내년 출시 목표
양사 개발역량·노하우 시너지 기대

지난해 넥슨에 고문으로 합류한 '던전앤파이터의 아버지' 허민 원더홀딩스 대표가 본격적인 게임 개발 총괄에 나선다.

넥슨은 원더홀딩스와 함께 게임 개발사 2개를 합작법인(조인트벤처) 형태로 설립한다고 23일 밝혔다.

개발사 두 곳은 '마비노기 모바일'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개발을 담당한다. 신설될 합작법인에서 양사의 지분율은 동일하게 50%씩이다. 넥슨 데브캣 스튜디오 김동건 총괄 프로듀서와 카트라이더 개발조직 박훈 선임 디렉터가 각각 합작법인의 초대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허민 대표는 전체 프로젝트



넥슨 사옥 전경. /넥슨

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게 됐다

지난해 넥슨 고문으로 합류한 허민 대표는 처음으로 넥슨에서 공식 직함을 가지고 본격적 지휘에 나선다. 허민 원더홀딩스 대표는 연간 영업이익의 1조원에 달하는 '던전앤파이터'와 소셜커머스 '위메프'를 연이어 성공시킨 주역이다. 이번 신규 법인 설립은 지난해 하반기 넥슨의 신작 게임 개발 논의에 허민 대표가 고문 역할로 참여한 것이 인연

으로 작용했다.

'마비노기모바일'은 2004년 출시 후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 한 온라인 게임 '마비노기'를 원작으로 한 모바일게임으로, 내년 출시가 목표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넥슨의 캐주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기반 신작 게임이다. 신규법인들은 넥슨에서 개발중인 신작 '마비노기 모바일' 개발실과 '카트라이더 지식재산권(IP) 개발 조직'이 합류하게 된다. 독립적인 환경에서 '마비노기 모바일'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론칭을 목표로 개발에 전념할 계획이다.

넥슨과 원더홀딩스는 각사가 보유한 개발 역량과 사업 노하우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고,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발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복안이다.

/김나인 기자

포스코에너지, 가스 트라이얼 사업 확대

FSRU타입 LNG 캐리어 선박 마쳐

포스코에너지가 해외선사 대상의 가스 트라이얼 사업을 본격화한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20일 광양 LNG 터미널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미국 액셀러레이트 에너지사의 FSRU(부유식 저장 재기화선)타입 LNG 캐리어 선박에 성공적으로 가스 트라이얼 서비스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가스 트라이얼이란 해외선사 인도선박을 대상으로 신규 건조한 LNG운반선이 LNG 선적부두로 이동하기 전에 LNG 탱크에 천연가스를 충전하고, LNG가 안정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적정 온도로 낮추는 작업을 말한다.

FSRU 타입의 LNG선은 일반 LNG선박과 달리 액체 상태의 LNG를 기체로 바꿔줄 수 있는 기화기를 직접 장착해 가스 공급에 효율을 더한 특수 선박이다. 포스코에너지는 FSRU 타입 LN



포스코에너지가 미국 액셀러레이트 에너지사의 FSRU타입 LNG캐리어 선박에 가스 트라이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

G 캐리어 선박에 가스 트라이얼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로써, 일반 LNG선박을 포함한 다양한 타입의 LNG 캐리어 선박에 가스 트라이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해 9월 광양 LNG 터미널을 포스코로부터 인도 받은 이후, LNG터미널 임대사업과 함께 연계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내달 국내 첫 '수소 모빌리티 쇼' 열린다

수소산업 현황·전략 공유의 장

국내 최초의 수소모빌리티 전시회인 '2020수소모빌리티+쇼' 기간 중 전 세계 주요국들의 수소산업 현황·비전·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수소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2020수소모빌리티+쇼' 기간 중 국제수소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7월 2일 오후 1시부터 킨텍스 제1전시장 3홀 내 세미나실에서 국내외 수소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포럼은 기초연설을 비롯한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

한 민간 국제협력 강화 및 수소경제 이행 주요국들의 현황·비전·전략을 공유해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기조연설에는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낸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회장과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전문회사인 에어리퀴드의 에르빈 펜포니스 부회장이 참여해 '한국 수소산업의 시장 현황과 도전', '한국의 적극적인 수소경제 추진과 아시아의 장기적 수소 수요에 대한 국제적 통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스페셜 세션에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주제로 산업통상자



원부 최연우 과장이 '수소사회의 도래와 모빌리티 비전'을 주제로 김세훈 현대차 전무가 발표하며, 기조연설 발표자인 문재도 회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세션 1은 '해외 수소산업 현황'이라는 주제로 해외 연사들이 참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연사들이 입국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외 연사와 1대 1 화상으로 연결하는 영상 발표 형태로 진행된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중, 조직개편 단행... 조선·해양사업 통합

조직 효율성 제고, 체질 개선

현대중공업이 조선사업부와 해양사업부를 조선해양사업부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현대중공업은 23일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 사업부 통합 및 부서 통폐합 등을 통한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서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중공업은 특히 경제환경 및 시장 변화에 따라 조선사업과 해양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업계의 추세를 반영, 별도로 운영되던 두 사업부를 오는 7월 1일부로 조선해양사업부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선, 해양은 물론 엔진, 경영지원 등 전사적으로 조직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부서 간 통합을 통한 조직 슬림화도 동시에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체 부서의 약 20%를 축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임원 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운 기자